

해능이 선의 실질적 창시자라면 마조(馬祖道一 709~788)는 그 종흥조라 할 수 있다. 사천지방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절을 드나들다가 열 두살에 출가했다. 산 속에서 혼자 수련하다가 어느날 남악회양(677~744)의 눈에 띄었다. 남악은 첫 눈에 그가 범상치 않은 그릇임을 알아보았다.

한형조 무문관 탐방

51

마조의 딱지돈 ②

"자네 지금 무얼 하고 있나?" "보시다시피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은 해서 무엇하려는가?" 마조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돌려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가 되려구요."

다음 날 남악은 마조의 선방 앞에서 기와를 쓸듯이 걸기 시작했다. 사자대는 소리에 눈을 뜬 마조가 그에게 물었다. "무얼 하고 계십니까?" "보시다시피 기와를 깔고 있지." "뭐하러 그러고요?" "거울을 만들려네." 마조는 크게 웃으며, "원, 농담도, 기와를 깔아 어떻게 거울을 만들니?" 남악은 마조의 말을 잡아채듯 말했다. "그렇지. 기와를 깔아 거울이 된다면 퍼질러 앉은 좌선으로 어떻게 부처를 기약하는가?" 최망치로 맞은 듯 얼얼한 마조가 회양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수레가 한 칸이면 소를 쳐야 하는가, 바퀴를 쳐야 하는가?" 마조는 대답이 없었다. "좌선이라고 앉은 부처 공부하고 있는데, 참된 원리는 앉거나 누우

로 지란 그는 강서(江西)로 가서 독자적인 법을 펼쳤고, 그 아래 수천의 제자들이 선의 역사를 수놓기 시작했다. 남악과 마조의 만남은 선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찬연한 광휘 가운데 하나이다. 남악은 마조를 일깨우기 위해 하루를 참고, 다음날 선방 앞에서 찬연스럽게 기와를 깔아



"따지고 취하는 태도에 부처 질식"

남악과 마조의 만남은 선종사에 찬연한 광휘

에 걸리지 않고, 궁극의 자리는 일정한 틀이 없다. 너의 따지고 가리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태도로 하여 부처가 질식하고 있음을 왜 모른다 말이나." 이 말에 마조의 응어리진 속으로 시원한 감로수가 흘러 지나갔다.

기쁜 나머지 큰 절을 하고 다시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정신의 영원한 고요와 평안(無相三昧)을 유지하셨습니까?" "네가 마음의 근본에 대해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너를 위해 그 비밀을 살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 인연으로 도(道)를 보게 될 것이다." "도는 빛깔도 형상도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음바탕을 보는 눈이 아니라 도를 볼 수 있으니 무상삼매 또한 그렇다." "그것은 혹 성취되기도 하고 일시되기도 하는 겁이니까." "그렇지 않다. 내 계승을 물어보거라."

마음은 여러 종자를 품고 있으니, 비를 만나 다들 싹이 튼다. 삼매의 꽃은 형상이 없으니, 어찌 이룩되거나 무너짐이 있으리.

마조는 이 말에 말바닥에 남은 의식까지 떨쳐냈다. 이후 남악을 모시고 10년을 지내며 나날이 깊이를 더해갔다. 천리를 내달을 준비

의 유혹과 참탈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한 불교의 기초수련이다. 남악이 이 수련의 효과와 의미를 전면 부정했다는 생각은 않는다. 남악 또한 입문자에게는 선의 준비단계로 부엌일과 좌선을 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상대는 앞으로 선의 운명을 걸머쥐고 '천하를 짓밟을 천리마'이다. 남악은 단절된 공간에서 자제하지 말라. 깨달음을 위해 최상승의 법문, 즉 해능 이래의 돈오(頓悟)의 법문을 들려주었다.

엄격한 생활과 소승적 명상이 해탈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하지 말라.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수행의 단계와 과지(果地)의 점차(漸次)를 살하는 방편들은 궁극의 깨달음을 오히려 방해한다. 부처와 중생 사이, 그리고 깨달음과 미혹 사이의 거리는 기실 아주 가깝다. 현실이 곧 궁극이고, 내가 곧 부처이다(即心是佛). 지금 내가 그 본원의 걸림없는 세계를 네 스스로 흔트리고 있지 아니하니, 너의 가리고 따지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태도로 하여,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한 중중의 장애로 하여 부처의 걸음이 뒤뚱거리고 있다.

이 말에 마조의 눈이 문득 열렸다. 그 사건은 초시간적인 순간, 즉 시간을 넘어선 영원 속에서 일어났다. 그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절대 열림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계 지키며 일체생명 위해 선행

팔경도의 네 번째 단계인 정업(바른 행동)은 전통적으로 계율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왔다. 바른 행동이 담고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산스크리트어의 아힘사(ahimsa)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유정·무정물에 대해 해악을 끼치지 않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가자를 위한 팔경도

11

마음을 분별없게 만드는 취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한마디로 일체 생명을 위해 자비심과 하심(下心)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계지킴으로써 하루하루의 생활을 소박하고 순수하게 이끌어간다. 계행이 우



고 어려서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한마디로 일체 생명을 위해 자비심과 하심(下心)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계지킴으로써 하루하루의 생활을 소박하고 순수하게 이끌어간다. 계행이 두 넘어야만 한다. 그리하면 일체를 포용하는 자유를 찾게 되고, 지비와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무위의 경지를 만나게 된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 현실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바른 행동의 수행관에서 찾을 수 있다. 암네스티(Amnesty)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본인이 진행중이며 정치·사회·사상적 문제로 고문 등의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조직적인 폭력 외에도 인간은

정업 ①

아힘사 운동을 전개해 인도 독립의 초석을 다진 간디는 "자각과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선 사람은 반드시 자신처럼 모든 유정·무정물들을 사랑할 수 있다. 오직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는 정치적 영역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동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는 바른 행동이 토대가 된다. 바른 행동은 우리 수행의 핵심이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수행의 계율들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

"어리석음·사탕 품고 있는가 감정을 관찰 품의 원인 알아 모든 존재에 해악 주지 말라"

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애롭고 고요하고 맑아 진다. 수행은 이러한 토양속에 무럭무럭 커갈 수 있는 것이다.

아찬차 스님은 "모든 악행을 삼가고 모든 선행을 행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고 항상 가르쳤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행은 가치없는 것을 없애고 가치있는 것을 간직하는 일이다.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사탕

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 현실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바른 행동의 수행관에서 찾을 수 있다. 암네스티(Amnesty)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본인이 진행중이며 정치·사회·사상적 문제로 고문 등의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조직적인 폭력 외에도 인간은 누구나 죽는 날까지 잠자고 있는 세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평소 겨우 40kg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리던 사람도 절박한 상황에서 80kg의 짐을 어깨에 메고 달릴 수 있다.

이 관점을 마음에 들림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절대적인 가능성을 긍정하게 된다. 절대 긍정의 불교적 신념이 과학적으로도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인생을 거대한 피아노라 생각한다. 그 피아노는 보통 것과는 달리 건반의 수가 70조(兆)개나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전자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어떤 부분은 작동시키고, 또 어떤 부분은 잠재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ON, 또는 OFF).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저마다의 유전자는 ON, OFF를 번갈아 선택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은 이 구조에 수시로 영향을 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간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체 건반의 겨우 일부분만을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잠자고 있는 유전자 가운데는 나로 하여금 대오의 경지에, 또는 초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인간 피아노 앞에서 숨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불교와 수학

55

잠자는 유전자

김용운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으며, 자연에 도전한다는 소리도 흔히 듣는다. 인간은 우주 계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을 밟았으며, 복제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자랑하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은 처음엔 겨우 1, 2, 3' 정도의 수를 알아내고, 돌과 나무로 간단한 생활도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성과를 얻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기의 실타라 얽힘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큰 나뭇가지에 매달린 잎이 바람에 날려서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해 낼 수 없고, 또한 나뭇잎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 또한 결혼하면 아이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아이를 낳고, 태어난 아이에게 적당한 영양을 제공하는 정도의 일을 할 뿐이며, 그 외의 모든 일은 절도한 연기의 결과에 따른 생명원리의 결과에 불과하다. 우리는 작은 생명인 세포 하나도 만들 수 없다.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물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생각해 하는 중대한 물음이다. "중생의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유마경)"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것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여, 마치 TV의 채널을 정하는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어느 특정한 유전자의 단추를 눌러 병에 걸리기도 하고, 치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실 마음은 중요

뇌세포의 수는 100억개를 훨씬 넘는데, 이들 사이가 회로로 연결됨으로써 각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평생에 겨우 10% 정도의 뇌세포만을 활용할 뿐이며 나머지는 그대로 잠재우고 있다. 인간의 신체 다른 부분에 내장되어 있는 유전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훈련과 정진 여하에 따라 육체나 지성은 잠자고 있

70兆 인간 유전자 'ON-OFF' 되풀이 잠자는 세포 작용 시키면 깨달음 얻을 수 있다

한 연기의 한 요소이며, 마음가짐이 연기의 고리에 여과되어 신체 조건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좋은 유전자를 자극하고, 나쁜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이다. 마음의 발동 이 하나의 연기의 요인이 되어 모든 유전자와의 긍정적인 협조를 자극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해할 수 없이 많은 유전자가 있으나 대부분이 OFF의 상태에 있다. 아직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나, 이들 가운데는 인간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가 상당히 있다. 이 사실은 뇌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는 부분을 ON으로 전환시켜 엄청난 연기의 고리에 여과되어 신체 조건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대부분의 것들은 보통 사람에 비해 잠재우고 있는 세포나 유전자를 좀 더 넓게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 극치의 대오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겉보기에 어른들은 성장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세포는 엄청난 속도로 교체하면서 분해, 합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메타본 표현이기는 하지만 육체는 물질이며, 유전자는 인간의 몸에서 화학 작용을 일으킨다.

장가안가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 삼천백 살천부 적남(간) 삼천백 살천부 적남(간) 삼천백 살천부 적남(간)
- ▶ 마음을 밝히려는 새 법구경(간)
- ▶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전 4권)
- ▶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 새불교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 불자 8행기집기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망라!
- ▶ 재미있는 금강경산책(상·하)
- ▶ 불교 EQ 100
- ▶ 불교 만지 시키기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중도가 의 다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이전 및 통신생)
 - ①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범고) 다루는법·도량형,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② 중급과정: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 ③ 작법반: 요장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의식전문 범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1998년 5월 18일 ~ 6월 19일
- 개강일시: 1998년 6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1년)
 - 법사과정 ○ 심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 본원은 초중급 교육도량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 청진의 지도와 편의 제공
- ※ 초심자라도 어렵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건강의 신비! 옥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태교에서 무덤까지 옥을 달고 산 한국인들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여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원위를 기른 결과 솜뿔 쥐의 정자가 40% 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양규약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결빙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다(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목록: 옥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류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메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 아니라 승패가 걸립니다.

玉山家 777-0105 (백옥옥)

신문광고 사과문

1998년 5월 5일

1998년 5월 5일 「주간불교신문」 10면 광고란에 게재된 「한국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손혜인의 신문광고는 본인의 허락없이 광고된 것으로 대승종 총무부장 김용섭이 임의로 올린 명단이므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참회하겠습니다.

대승종 총무부장 김용섭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대학 학장 손혜인 스님 귀하